海外速報

中共, 처음으로 国内 衛星通信網 완성
—5개 地上局 연결, TV·電話 등—

北京의 소식에 의하면 中共 최초의 국내 衛星通信網이 완성되어 지난 7월 8일 정식으로 통신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国際電気通信衛星機構(Intelsat)의 위성을 이용해서 北京, 라사(티베트), 우루무치(新疆), 후후호투(内몽고), 広州의 5개 地上局을 연결하는 通信網으로 장거리 電話, 電報, TV 등의 중계 업무를 하게 된다.

美 電算機業界, 「IBM症候群」 만연
—企業提携와 ATT에 일말의 期待—

美国의 컴퓨터産業은 IBM 症候群으로 병들어 있다. Main Frame, Mini Computer, Personal Computer 그리고 Data 通信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IBM이 계속 세력을 확대시키고 있어, 이대로는 자유경쟁 자체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 속에 빠져 있다.

民間 市場調査会社에 의하면, IBM의 Market Share(出荷 金額 베이스)는 Personal Computer 40%, Mini Computer 40%, Main Frame 75%로 추정되고 있다. 고작 Mini Computer분야에서 DEC가 善戦하고 있는 외에는 모두 IBM이 위세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Main Frame에서는 81年부터 84年까지 IBM의 점유율은 出荷台数로 45%에서 67%, 금액으로는 51%에서 76%로 급격한 신장을 과시하였다. 얼마 전만 해도 群雄割拠하였던 Compatible(互換機種) 메이커는 이제 겨우 NAS와 Amdhal이 남아 있을 뿐이다.

IBM이 90年을 기해서 1,000億弗의 기업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市場을 거의 독점해 버리겠다는 野望인 것이다. 이러한 만연적인 IBM 症候群에 대한 치료법은 없는가. 한 가지는 企業 提携로, 이미 Amdahl/富士通, NAS/日立, Honeywell/日電, Sperry/Burroughs 등 급속히 재편이 추진중이다. 특히 Amdahl과 NAS가 互換機種 메이커로서 살아 남게 된 것은 日本 메이커와의 제휴가 주효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司法省이 独禁法에 의한 外科手術을 단념해 버린 지금, 업계의 기대로는 역시 分割로 상처받은 巨人 ATT에 걸려 있다.

欧洲 衛星通信市場, 91年에 TV가 主役
—光 Cable 및 DBS 출현으로 변화—

美 調査会社 Frost & 설리반(F&S)은 최근 欧洲의 衛星通信市場의 장래에 관한 調査 報告를 발표하고, 91年까지의 위성통신 回線 능력의 반 이상을 TV가 점유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현재의 점유율은 TV가 44%, 電話가 43%(나머지는 商業 서비스)로 両者는 균형 상태다. 그러나 電話回線 수요가 포화점에 가까와진 한편으로 光Cable이란 라이벌이 등장해, 위성 회선 이용에서 점유하는 電話의 Share는 상대적으로 후퇴한다. 이에 대해 TV는 各国에서 直接放送衛星(DBS)이 계획되어 있어 금후 그 회선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다음으로 통신위성에 관련한 機器類의 수요는, 금후의 衛星 本体와 발사 부분의 비중이 저하되고 DBS 受信局을 비롯한 地球局 설비의

비중이 증대된다.

美 經濟 成長 가속, 金利는 현수준
—금후 6개월의 美 經濟 전망—

Wall Street Journal紙가 최근 經濟 전문가 30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후 6개월 내에 美国 經濟는 성장을 가속하고 Inflation도 재연되며, 金利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성장률은 대폭적이지 않고, 87年 上期에는 어렵게 되어 다소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들 전문가 30名의 推計値 평균으로는 금년 下期의 GNP 신장은 실질 年率로 3.4%, 87年 上期에는 3.1%가 된다.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금년에 들어와 2.6%의 신장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경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FRB가 금후 수주일 내에 금융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볼드리지 商務長官은 美 경기가 금년 하반기에 재상승될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무역 赤字, 에너지 부문의 不調, 자동차 산업의 재고 조정 등이 금후 개선될 것임을 밝혔다.

台湾에 超LSI 工場 건설
—Philips와 台湾研究所 합작으로—

Philips社가 合作에 의해 台湾에 超LSI의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Philips의 社長에 의하면, 美·日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台湾의 半官半民의 産業技術研究所와 공동으로 생산공장을 설립, 初年度에 5,800만弗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의 27.5%에 해당하는 出資 비율인데, Philips는 96年까지 전체의 51%까지 비율을 높여 갈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87年부터 월간 1만枚의 Wafer를 생산하고, 92年까지는 月産 능력을 4만枚로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電子렌지, 금년 世界 需要 1,800만대
—日製 과반수, 韓国 500만대 生産—

금년도 電子렌지의 총수요는 1,800만대에 달할 전망이며 현재의 성장 페이스를 계속해 간다면 87年度의 세계 총수요는 2,000만대가 될 것이다.

전자렌지의 세계 총수요는 수년간 순조로운 신장을 보였으며 특히 85年에는 전년대비 300만대 증가인 1,600만대를 기록하였다. 시장 규모가 큰 美国이 전년대비 150만대 증가인 1,100만대에 달하였고 日, 欧洲, 캐나다 등 주요 지역도 두 자리의 신장세였다.

금년에도 모두 순조로운 상황을 보여 연간 총수요는 1,80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美国 1,150만대, 日本 165만대, 美国 등 欧洲 250만대, 캐나다 100만대, 호주 60만대 등으로 예상된다. 전자렌지의 금년 총수요 중, 日本은 국내 및 海外 현지 생산을 포함해서 900~1,000만대의 점유율을 보여 50%를 확보하고 있는데 급추격을 벌여 오고 있는 곳이 韓国이다. 韓国은 弗貨와 円貨의 영향을 배경으로 対美, 対欧를 중심으로 제품 수출을 증가시켜, 생산대수도 금년도에 50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에 美国 메이커는 年産 250만대의 규모여서 향후 전자렌지의 市場 지도는 크게 변화될 것이다.

한편 単機能 타입의 人気가 높아서 美国에서는 90%, 欧洲 및 캐나다에서는 85%, 日本에서는 40% 정도가 동타입으로 금년 중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